

# “답답함 곧 풀어드릴게요”

### SBS ‘피고인’ 지성 기억상실 연기 돋보여 ... 4회만에 시청률 20% 돌파

“드라마가 답답하죠? 다음주엔 답답함이 조금씩 풀릴 거예요”

과연 정말일까? 아무래도 상관없다. 지성의 연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이다.

SBS TV 월화극 ‘피고인’〈사진〉이 4회 만에 수도권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쪽쪽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라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대나무를 꼭 쏘개는 기세로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다.

혼자서 ‘열 일’을 하느라 감정 소모와 체력 소모가 엄청난 지성은 4일 “다음주엔 답답함이 풀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시청률 상승 전망에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보인다.

‘피고인’은 움짱달걀 못 하는 상황에 처한 박정우(지성 분)의 이야기다. 정의감 넘치는 열혈 검사였던 박정우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죄자가 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박정우가 딱 그 부분만 기억을 잃었다는 점.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일만 뇌 속에서 까맣게 지워진 것이다. 모든 증거가 박정우를 향하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누명이라고 해도 울가미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답답함이 목을 조른다.

그러나 여기서 답답함은 요즘 유행어가 된 ‘구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아 호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극중 상황은 너무나 명백해서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 그래서 긴장감과 호기심이 하늘을 찌른다. 과연 박정우는 사방이 막혀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의 누명 벗기 고군분투는 저 유명한 ‘소생극 탈출’을 비롯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은 영화 ‘7번방의 선물’과 ‘검사외전’을 합쳐놓은 모양새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여기에 기억상실이라는 코드를 넣어 변주를 꾀했다.

누구보다 똑똑한 검사였지만 무슨 영문인지 딱 그날의 기억만 잃어버렸다는 상황이 여러가지 궁극증을 자극한다. ‘진짜로 기억을 잃은 것일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어떤 이유로 기억을 잃은 것인지, 어떻게 그 부분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등이 모두 드라마의 에너지원이 된다.

쌍둥이 형제를 등장시키는 트릭으로 다양성을 정착한 것도 모미다. 엄기준이 1인2역을 맡은 쌍둥이 형제는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그러나 쌍둥이라 해도 각자가 가진 경험과 기억이 다르고, 성장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시력과 지문이 다르다는 점 등은 약당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재미있는 단서가 된다. 무엇보다 지성의 명연기가 시청자를 붙든다. 검사에서 살인현의를 쓴 피고인으로 급전직화한 박정우의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은 강하게 감정이입을 이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 날의 기억 때문에 몸부림치는 지성의 연기는 혼자 보기 미안할 정도로 열연이다.

지성도 1인2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피고인으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범죄자들이 이를 가는, 청렴하고 열정적인 검사로서 중형 무진 활약해 액션 드라마를 보는 듯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그랬던 박정우가 차고 일어났더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버리자 지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겁을 잔뜩 먹은 정신질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했다.

얼굴 근육과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서 필필 튀는 감정이 묻어났다. 뇌 속이 정전돼버린 자의 절박한 절규를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그의 연기는 이 드라마의 어두운 빛깔을 뒤집어엮고도 남는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손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감옥 바닥을 긁어 글자를 새기는 등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인간함을 쓰는 박정우의 모습은 강한 자력으로 시청률을 모으았다. ‘킬미 힐미’에서 무려 7개의 인격을 훌륭하게 소화했던 지성 아니던가.



가족 살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박정우는 처음에는 항소를 포기한다. CCTV를 비롯해, 모든 증거가 명확하자 자포자기한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는 이내 그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청자의 응원을 독려한다. 정의가 바닥에 떨어져 갈기 갈기 찢어진 현실 세계에 사는 시청자들의 정의 구현에 대한 소망을 결집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어느 세월에도 정의가 바로 설지 모르지만, 드라마 속에서도 빨리 정의가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을 그러모은다.

박정우의 누명이 벗겨질 확률이 제로이고, 지금껏 패스만 해온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박정우가 갇힌 감옥에는 온통 ‘검사 박정우’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려왔던 범죄자들뿐이다.

반면 박정우의 반대편에는 사이코패스 재벌 2세가 자리하고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조작한다. 요즘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 송산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드라마에서조차 질 수는 없다.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 이러한 시청자의 마음이 바로 ‘피고인’의 강력한 엔진이다. /연향뉴스

# 홍상수감독 ‘밤의 해변에서 혼자’ 베를린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 진출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독일에서 열린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장편 경쟁 부문에 올랐다. 홍 감독의 영화가 이 영화제의 장편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008년 ‘밤과 낮’, 2013년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 이어 3번째다. 한국영화가 이 부문에 진출한 것도 4년 만이다.

올해 장편 경쟁 부문에는 세계 각국의 감독들이 연출한 총 18편이 진출했다. 홍 감독의 영화는 프랑스 재즈 기타리스트인 장고 라인하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 ‘장고’, 미국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로건’, 영국 대니 보일 감독의 ‘T2 : 트레인스포팅’ 등 다른 경쟁작들과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놓고 경쟁한다.

홍 감독의 19번째 장편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과 불륜에 빠진 여배우 영화가 독일 함부르크 여행에 이어 감흥에 돌아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그렸다. 김민희가 주연을 맡았고 정재영, 권해효, 송선미, 문성근 등이 출연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오는 16일 오전 9시 현지에서 상영되며 이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다. 홍 감독은 이날 회견에 참석하며 김민희도 함께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는 장우진 감독의 ‘춘천, 춘천’(2016)을 비롯해 현대 미술가이

자 영화감독인 차재민의 단편 ‘12’, ‘최후의 증인’(이두용·1980), ‘오발탄’(유원목·1961) 등 4편이 포럼 부문에 초청됐다.

다큐멘터리 ‘양무’(문장용·전진 감독)는 제네레이션 부문에 선보이는 등 홍 감독의 영화를 포함해 총 6편의 한국영화가 초청됐다.

한국영화는 아니지만 컬리너리 시네마 섹션에 초청된 미국 영화 ‘셰프의 테이블(Chef's Table)-정관’도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백양사 친정암 주지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을 통해 한국 사찰음식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한편,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해마다 개최해왔던 ‘한국영화의 밤’ 행사가 열리지 않는다.

영진위 관계자는 “영화계에서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밤’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일각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를 영진위가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계 일각에서는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 영화진흥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영진위는 영화제 기간 베를린 필름마켓(FPM)에서 한국영화종합홍보관은 운영하며 한국영화 홍보와 해외세일즈업체의 수출상담은 지원할 예정이다. /연향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이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50 한국인의 팔도밥상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화랑)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고프지락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진실 55 명인 (재)	00 이웃집 찰스 (재)	05 통일전망대 55 MBC스포츠 2017 알마티 동계 유니버시아드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재)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숨터 (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푹?푹!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커다	00 TV블로그 고프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황금주머니 (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고프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화랑)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울린 도적)	00 월화미니시리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결작드라마 (리셀 웨폰)	10 태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특선영화 (용의자)
12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 24 40 리얼스토리 논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신문 아틀라스 <아시아 및기행 -하노이 음식탐험>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태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명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흥행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치루박이 잭스무치, 세발나물) 11:20 세계태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타기탁!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잭 15:35 오솔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흥행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강철소년대 파이어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크 오늘 (캐고 먹고 행복하라) 20:50 세계태마기행 <인살라, 모로코 -강렬한 색채의 나라> 21:30 한국기행 <안자기행-바다가 보이는 임자> 21:50 EBS 다크 프리덤 <긴팔인간 -음악 본능>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짜클 이야기)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월 10일 甲子)

 子	48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해겠다. 60년생 성국의 항방을 좌우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72년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 84년생 생왕의 기운으로 표리가 춘만해지는 기쁨이 있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26, 59</span>	 午	42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4년생 평한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다. 66년생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8년생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90년생 열반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03, 49</span>
 丑	49년생 감금한 신변 정리가 절실한 때이다. 61년생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해결된다. 73년생 좌충우돌과 다사다난함을 뒤로하고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85년생 지나친 조소는 추진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41, 63</span>	 未	43년생 마음먹은 대로 결과물을 낳게 된다. 55년생 좁은 폭으로 길게 이어지리라. 67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면밀하게 판단하라. 79년생 신통치 않으므로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91년생 결 가지를 무시하고 주된 것에 몰입하라.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52, 56</span>
 寅	50년생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62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협에 노출돼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74년생 내실을 기해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 86년생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89, 25</span>	 申	44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56년생 크기로 보지 말고 밀도를 살펴야 할 것이니라. 68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80년생 순환하면서 상생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65, 20</span>
 卯	51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63년생 불가항력적인 구조가 설정될 것이니 받아들여라. 75년생 까다로운 절차와 내용의 파악으로 인해서 고역이었다. 87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타칠 것이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72, 01</span>	 酉	45년생 과업을 도모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때이다. 57년생 오랜 세월 동안 불만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69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81년생 파상적으로 물러오는 형상이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71, 14</span>
 辰	52년생 큰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이익을 얻겠다. 64년생 금전적 이익과 연결되는 판세이다. 76년생 한 번 아닌 것은 향후에 그 어떠한 바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 88년생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요긴한 것이 들어올 수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86, 33</span>	 戌	4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58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70년생 진분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82년생 예방에 철저해야 한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12, 17</span>
 巳	53년생 조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회복할 수 있다. 65년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물러오고 있는 형상이다. 77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89년생 잘 헤아려 바뀔 일이 있겠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51, 16</span>	 亥	47년생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59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71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83년생 높아져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span style="float: right;">행운의 숫자 : 08, 78</span>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